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 금 혜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 금 혜

인 준 서

윤금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피아노 조기교육이 음악적성,
학업성적에 미치는 상관성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인 선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금혜

논문개요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반공교육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교육적 상황과 여건을 알아보고 남한의 교육과 비교하므로 통일을 대비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의 음악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교육의 체제와 이념을 알아보았으며, 북한의 중학교 1, 2, 3학년 음악교과서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창작의 영역별로 나누고 가사 내용을 중심으로 사상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음악용어를 비교하고 개량악기를 조사하였다.

북한의 음악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북한의 음악은 그들의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어려서부터 사회주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목적 자체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하여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정서적인 발달과 음악의 심미적인 측면은 배제되어 있고 음악의 가사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사상성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음악교육은 가사 중심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이다.

둘째, 음악교육의 목적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미적인 체험을 통해 감수성을 길러내는 부분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악기의 개량은 남한과 다른 음계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므로 연주법이나 음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의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첫째, 북한 음악교과서는 영역별로 가창, 기악, 시창, 감상,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사가 있는 가창곡과 시창곡이 61%로 가사중심의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 음악교과서의 가창영역을 빠르기와 형식, 박자, 조성, 작사, 작곡가로 분석해 본 결과 빠르기는 ‘보통 빠르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형식은 두도막 형식, 박자는 4/4박자가 대분이었다. 조성도 대부분이 C장조나 G장조로 되어있어 음악적 요소에서 한 가지에 치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음악교육은 인간의 감정과 사상에 영향을 주는 음악을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의 음악교육은 통일을 대비하여 사상성이 담기지 않은 곡이나 순수한 민요곡을 조사하고, 활발한 음악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서로의 음악을 접하게 하므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문제	3
4. 연구의 제한점	4
5. 용어정의	4
II. 본론	5
1. 이론적 배경	5
1) 북한의 교육이념과 내용	6
2) 북한의 수업	7
3)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8
2. 북한의 문학과 예술	9
3. 북한의 음악	11
1) 북한의 주체 음악	12
2) 북한의 사회주의 음악	13
3) 북한의 민요와 민족음악	14

4) 북한의 음악예술교육이론	14
4. 선행연구 고찰	17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22
1. 연구 도구	22
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22
Ⅳ. 북한의 중학교 1, 2, 3학년 음악교과서 내용 분석	24
1. 북한 음악교과서의 특징	24
2. 전체 악곡의 영역별 비중	24
3.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28
1) 가창	28
2) 가사 주제	31
3) 기악	34
4) 감상	35
5) 창작	38
6) 시창	41
4. 이해 영역에 의한 분류	46
1) 박자에 의한 분류	46
2) 구성에 의한 분류	47
3) 이 론	48
5. 남북한의 음악용어 비교	52

V. 결론 및 제언	54
1. 요약 및 결론	54
2. 제언	5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구성	24
<표 2> 음악교과서 영역별 비중	25
<표 3>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학년 차례	27
<표 4> 1학년 가창 영역	29
<표 5> 2학년 가창 영역	30
<표 6> 3학년 가창 영역	31
<표 7> 가사 주제에 따른 개수	32
<표 8> 김정일 가계를 나타낸 단어	32
<표 9> 북한의 사상성을 나타낸 단어	33
<표 10> 반미, 반일을 나타내는 단어	33
<표 11> 기악 영역	34
<표 12> 감상 영역	37
<표 13> 감상곡의 가사 주제별 분류	38
<표 14> 1학년 창작 영역	39
<표 15> 2학년 창작 영역	40
<표 16> 3학년 창작 영역	41
<표 17> 1학년 시창 영역	42
<표 18> 2학년 시창 영역	44
<표 19> 3학년 시창 영역	45
<표 20> 박자에 의한 분류	46

<표 21> 조성에 의한 분류	47
<표 22> 1학년 이론	49
<표 23> 2학년 이론	50
<표 24> 3학년 이론	51
<표 25> 음악용어 비교	52

악 보 목 차

<악보 1> 1학년 제 13과 창작	40
<악보 2> 3학년 제 3과 창작	41
<악보 3> 1학년 제13과 시창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민족은 5천년 동안 같은 문화와 언어로 한 나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대립으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분단이후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이질화 현상으로 교육이념이나 환경 등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며 공산주의에 맞는 혁명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세뇌 교육을 자행했으며,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생겨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로 인하여 통일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소련연방국가의 해체와 중국의 시장 개방 등으로 세계는 탈이념화, 개방화 추세가 되어 가고, 국경이나 인종을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최근 통일을 향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교류는 통일의 문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1972년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장관급회담을 지속해 왔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왕래와 교류를 활성화 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로 네 차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있었고, 1만여 명의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경의선 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육로관광 등 남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남북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통일을 향한 교류와 협력의 단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가 단일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 체제 내에서 살게 되는 상태의 완성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 통일에 국한 되어왔다. 그러나 정치적 통일만으로는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정치적인 통일이외에 실질적으로 우리민족이 하나가 됨을 느끼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이란 결국 문화의 동질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남한의 교육학에서 교육의 보존적 기능을 보면 ‘교육은 문화유산, 전통, 가치관 등을 유지하고 전달하여 사회의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 전통, 가치관을 알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음악교육은 동질성 회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악은 우리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성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남북한 어디에서나 음악은 있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다른 체제 속에서 이질화된 문화와 정서를 동질화시키는데 북한의 음악과 북한 음악교육의 연구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음악과 북한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음악교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북한과 같이 정보를 통제하

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이 체제유지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음악교과서의 연구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이해하며, 남·북한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통일을 위한 음악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교육과 북한의 음악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음악교육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음악교육과의 차이점을 밝혀 통일 이후 음악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 통일을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교과서는 모두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정교과서이다. 이에 북한 평양 교육도서출판사에서 1996년 개정된 북한의 1, 2, 3학년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시창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2) 각 영역의 가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살피고, 각 영역을 조성, 이론, 박자, 형식, 빠르기, 작사자, 작곡자로 분석 한다.

3) 교과서에 사용된 음악용어를 남한의 음악용어와 비교한다.

4) 개량된 악기를 자세하게 조사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최근 북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에 관한 자료도 많이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 북한 사회 자체의 폐쇄성과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자료의 부족으로 통일부에서 발행한 교과서와 일부 자료만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남북한의 단절로 직접적인 수업의 관찰 없이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만을 분석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북한은 2002년 9월 9일 「중앙방송」에서 기존의 ‘인민학교’는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학제변경 여부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없으나 ‘중학교’의 경우 종전의 고등중학교와 같이 6년제인 것으로 추정된다.¹⁾

2) 소학교(인민학교) 1학년은 남한의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소학교 과정이 4년으로 북한의 중학교(고등중학교) 1학년은 만11~12세로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과 같고, 북한의 중학교 3학년은 만 13~14세로 남한의 중학교 1학년과 같다.

1) <http://www.unikorea.go.kr>>북한이해>북한관련분석자료

Ⅱ. 이론적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이에 북한의 명칭과 인구수 등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라고 표기한다. 북한의 인구는 1993년 인구조사를 통해 2,121만 명으로 발표되었으나 1999년 현재, 2,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한 인구의 47%이다. 북한은 50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2002년 12월 발표에 의하면 9도, 4직할시(평양·남포·개성·나선), 24시, 2구, 2지구, 31구역, 146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1. 북한의 학교

북한의 학제는 4-6-4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교육과 출신성분에 의거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이며, 교원대학은 3년제, 사범대학은 4년제로 운영되고 일반대학의 경우도 학교와 전공에 따라 4~7년을 공부한다. 연구원은 3~4년, 박사는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학기는 1969년 이후 9월 1일을 시작일로 하였다가, 1996년부터 4월 1이 시작일로 바뀌었다. 방학은 1월과 8월에 한 달간으로 한다.²⁾

2) 「북한 이해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 개발과, p142

북한의 의무교육은 1975년에 유치원 높은 반 학생을 ‘학교 전 의무교육’에 포함 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인적 교육으로 하기 위함이다. 의무교육의 실시로 보통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노동을 통해 지불된다고 할 수 있다.³⁾

1) 북한의 교육이념과 내용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이념은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⁴⁾’와 1998년 9월 5일 발표한 헌법헌법 제43조 그리고 1999년 8월에 채택한 교육법 제1조 등에서 알 수 있다. 헌법에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사회주의 교육이념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의 교육법은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은 정치사상 교육, 과학 기술 교육, 체육교육, 예능 교육, 국방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업시간은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 공작의 순으로 국어시간이 많고, 주당 1시간씩 김일성·김정일·김정숙을 우상화하는 과목이 있다. 중등교육은 6년 동안 23과목을 교육하고, 과목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초등교육내용과 비슷하다. 고등교육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남자의 경우 70%가 군대에 입대하고, 20%는 직장에 배치된다. 나머지 10%만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3) 유병선, 「북한의 이해과 민족통일」 도서출판 이화, p72

4) 테제: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서 그 기본 방침을 규정한 강령, www.naver.com

다. 직통생은 성분이 확실하고, 가정환경이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 후,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가기도 한다.

북한의 교육행정 체제는 교육정책 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에서 하고,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의 총괄은 내각의 교육성에서 하도록 분담하고 있다. 교육성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 교육부를 두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시·도(직할시) 인민위원회 교육국이 맡고 있다.⁵⁾

2) 북한의 수업

북한의 교육시간은 학교별로 다르다. 소학교는 하루 평균 5시간은 가르치며, 과목당 45분 수업에 10분의 휴식이 있다. 중학교는 1~3학년이 6시간, 4~6학년이 7시간을 가르친다. 대학은 하루 4강좌를 기준으로 하여, 강좌당 90분의 수업을 한다.

수업은 보통 8시에 1교시를 시작하고 12시 35분에 5교시를 마친다. 5교시를 마치면 1시간 50분간의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오침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은 등교 후 30분간 독보와 상학⁶⁾ 전 검열이 실시되어 8시 30분에 수업이 시작되고, 오전에 3강좌를 들으면 점심시간 및 오침시간이 있다. 오후 강좌는 4시에 시작하여 5시반에는 정규강좌가 종료된다. 남한과 다르게 오침시간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에서도 교육열이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중학생들은 개인적 노력에 의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공

5) 유명옥, 「유교수의 북한 교실」, p359

6) 수업, 학습조직의 한 형태, <http://www.unikorea.go.kr> 통일북한 용어 사전

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고급관리의 자녀들은 남한의 과외활동과 가장 비슷한 소조활동을 받는데, 대학생이나 학교 교원들을 불러 비정기적으로 소조활동을 한다. 소조의 종류로는 수학소조, 외국어 소조, 예체능 소조들이 있다.

3)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북한의 총 수업 주 수는 1학기에 16주, 2학기에 20주로 36주이다. 하루 수업 시간 수는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는 6시간, 목요일에는 1-3년까지는 2시간, 4-6학년까지는 4시간 수업을 한다. 한 시간 수업 시간은 45분이고, 쉬는 시간은 10분이다.⁷⁾

북한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시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은 고등중학교 교과과정은 물론, 북한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한 중등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에서 정치사상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은 주체 사상, 공산주의의 우월성, 공산주의 이념과 가치관의 주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교육내용이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공산주의 도덕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이란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집단주의 정신, 생산과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애호 정신과 근검절약 정신 등을 말한다. 특별히 충성, 질서, 청결, 노동, 근검절약, 온정주의, 의리 등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어려서부터 터득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7) 고대 평화 연구소 북한 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p21

셋째, 실습, 노동, 조직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다. ‘실습’ 과목과 생산 노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실습’ 과목은 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장이나 가축장에서 실습을 겸한 노동으로 이루어지며, 생산노동은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노력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북한은 공식적인 교과활동의 일환으로 생산 현장에 참가하는 노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의 문학과 예술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아름다움이나 인간 보편적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주민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복종하는 인간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학,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서커스)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동원하고 있다.

문예창작 방법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강조하나 이 또한 노동자·농민 등을 주인공으로 사회주의의 긍정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을 개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및 북한체제 유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예내용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말하는데, 당성은 당 노선과 정책에 입각한 소재 선택, 노동계급성은 계급투쟁의 강조와 계급교양의 역할, 인민성은 인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⁸⁾

북한의 문학과 예술은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8) <http://www.koreascope.org/ks/kor/index.jsp> 문예

또한 목적주의 문예관으로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제 52조)고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당국이 의도하는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⁹⁾

북한의 문학과 예술정책의 특징으로는 첫째, 예술성보다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요구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성과 혁명적 정신인 인민성을 강조함으로 목적주의 문예관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북한 문학과 예술은 지도자를 예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며, 한반도 혁명적 정치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창작된다.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통제성으로 모든 창작 활동은 주체의 선정에서부터 검열, 출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통제되고, 예술가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판총국에서는 작품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자본주의적 사상요소가 없는가, 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등을 검열한다.

북한 문학·예술정책의 세 번째 특징은 독점성으로 창조에서, 전파, 실행에 이르기까지 김정일 부자의 독점적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결국, 북한의 문예정책은 김일성의 교시나 주체상과 김정일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9) 「북한 이해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P228~229

3. 북한의 음악 10)

북한의 음악은 대중교양 가운데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사상교양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악곡보다는 가사를 강조하는 성악곡이 중심을 이루며, 내용으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노동의욕, 혁명성을 강조하므로 순수 서정 음악이 거의 없다. 북한의 음악은 우리음악과 달리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발간한 노래집의 반 이상이 소련민요와 중국풍의 곡이다. 북한 음악의 특징으로는 민족음악을 위주로 하고 서양음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때문에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선율이며, 기악보다는 성악곡, 곡조보다는 가사를 중시한다.

「조선음악600곡집」에는 가곡 302곡 중 80%가 직접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있고 김정일이 북한의 공식권력계승자로 부각된 1980년대부터는 김정일 찬양가요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가요에는 당 정책 선전 가요, 서정 가요, 혁명가요, 조선가요 등이 있으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송가가 가장 많이 있다. 2001년 하반기에는 ‘민족수난의 노래’ ‘계몽기 가요’라는 명칭으로 <낙화유수>, <타향살이>, <홍도야 울지마라> 등 신민요, 유행가 등 해방 이전의 흘러간 예 노래 모음집을 발간하고 있다. 북한의 전통음악은 김일성이 판소리를 ‘쌩소리’로 비판한 이후 거의 소멸되었으며, 현대음악에 맞게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를 개조하여 서구의 현대악기와 동시에 합주하도록 악기개량을 하고 있다.

10) 「북한 이해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P222~223

1) 북한의 주체 음악 11)

북한에서 ‘주체’라는 조건은 음악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학, 영화, 체육 등 북한 사회 전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주체란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자주성을 세워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며, 북한 음악에서의 ‘주체’라는 조건은 주체 확립의 기본 요구라는 자주성과 창조성의 구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주성이란 음악이 북한 주민의 감에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음악을 ‘조선 혁명에 복무하게 하는 기본 담보’라고 하고 있으며, 이를 내세워 음악의 목적을 우리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며, 음악의 진정한 창조자와 평론가는 북한주민들이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다. 창조성은 음악을 일반적 원리에 대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 음악의 성과와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감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1992년 『주체음악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다운 음악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며 시대의 사명에 이바지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역사적인 새 시대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는 현 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음악예술을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북한에서 주체음악은 예

11)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 신원문화사, p14~16

술의 사회적 본성에도 부합 된다”¹²⁾고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주체음악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체음악은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 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혁명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의 감정, 정서적 체험을 보여주는 특수한 예술이라고 한다. 이렇듯 북한은 음악을 인성과 지성의 발달을 위한 목적을 배제하고 주체사상 안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사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2) 북한의 사회주의 음악

사회주의 체제의 음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 구현이라는 목표에 충실해야 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작품의 소재는 현실성, 혁명성, 사회주의 우월성을 묘사해야 하며 작품의 주인공은 공산주의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고취해야 한다. 반면, 자유 진영 및 자본주의 체제의 경향을 비난하거나 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혁명으로 간주되어 상찬을 받는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둘째 공산주의자 즉 ‘긍정적 주인공’을 주도적인 주인공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 교양하기 위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 외에도 당성, 혁명성, 인민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음악은 인간 감정의 순화와 정서의 함양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다. 평양에서 발간된 이론서도 ‘음악은 군중을 교양개조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일성, 김정일

12) 김정일, 「주체음악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3

과 세습체제 찬양, 주민 노역 선동을 통한 체제 선전, 공산주의 우월성 고취를 통한 대한 비난선전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의 민요와 민족음악

북한은 두 가지 목적에서 민요를 모든 음악 창작의 기본으로 두고 있다. 첫째로 공산 정권의 ‘력사적 정통성’을 갖추는 정치적인 목적과, 두 번째는 김일성이 양악보다는 민요를 좋아한다는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민요를 ‘근로 인민들의 집체적 지혜에 의하여 창작되고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고 인민들 속에서 불려지면서 다듬어진 인민음악의 기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요를 바탕으로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라고도 주장하고 있다.¹³⁾

북한의 민족음악이란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을 결합하여 근로인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80년대 북한의 민족음악은 ‘악체계’의 사회주의적 내용과 ‘음체계’에서 민족 전통 음악 본색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음 체계를 동시에 가리킨다. 이것은 서양음악을 가리키지 않으며, 북한은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 것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한 당의 방침이라고 말한다.¹⁴⁾

4) 북한의 음악예술교육이론

김정일은 “우리의 예술부문 학교들에서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술적 기량이 높은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더 많이 키워내

13) 한상우, 전계서 p124~127

14) 책임 편집 김문환 「북한의 인식9-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90, p176~179

는데 모든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¹⁵⁾고 하며 주체의 음악교육의 본질을 이야기 하고 있다.

① 정치사상교육

김일성은 음악예술인육성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중요시 하여 학생들의 주체의 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정신품모를 갖춘 혁명적인 음악예술인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치사상교육을 위해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주체사상교육과 당정책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음악전문교육

전공실기교육에서도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데 ‘작곡가는 생활에서 가치 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깊이 파악한 조건에서만 작품을 의의 있는 주제와 사상을 뚜렷이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밝히는데 알맞은 형상을 창조할 수 있다. 또한 가사는 곡의 사상예술적 기초이며 가사와 곡은 사상과 정서적색갈이 서로 맞고 작곡가는 가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파악 능력이 있어야 한다.’¹⁶⁾고 하며 기악곡을 창작하는 경우에도 가사에 대한 분석파악능력을 깊이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며 곡을 작곡할 때 사회주의의 사상성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연주교육

‘연주교육으로는 성악가, 기악 연주가, 지휘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으로 작곡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산 음악형상으로 완결하는 예술로 보고 있다. 연주실기교육에서는 연주기초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아름답고 독

15) 김영복, 주체음악총서(13) 「주체의 음악예술교육」 북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p8

16) 김영복, 주체음악총서(13) 「주체의 음악예술교육」 북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p74

특한 소리를 내는 기량을 키워주기 위해 우리 식 발성법을 습득시켜야 하며 기악연주교육에서도 우리 식의 소리내기 주법을 체득시켜야한다.¹⁷⁾고 한다. 또한 음악적 기초를 튼튼히 닦아주기 위해서는 청음·시창교육을 강화하고, 음감, 리듬감, 악곡독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음악가의 기초적인 자질로 보고 있다.

④ 음악조기 교육

북한에서는 ‘아동시기가 사람의 일생에서 음악적 재능발전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하며 음악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 음악전문교육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주어 뛰어난 음악 예술인으로 키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음악교육의 내용으로는 청음·시창능력과 악기연주기량, 음악기초지식 등을 체득하는 데서는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사고에 의한 인식보다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감각에 의한 인식을 중요시 한다. 이 감각기관은 아동시기에 빠르다고 해서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 시기의 어린이들에게는 청각이 뛰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청음·시창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 시기는 운동감각도 발달하여 복잡한 연주동작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시기¹⁸⁾라고 보고 음악의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7) 김영복, 주체음악총서(13) 「주체의 음악예술교육」 북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p84

18) 상계서, p300

4. 선행연구 고찰

북한의 음악교육에 관하여 이미 연구된 다른 논문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이해경 「북한의 인민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연구」¹⁹⁾

이해경의 「북한의 인민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연구」에서는 북한의 초등기관인 인민학교를 대상으로 북한의 초등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북한교육 이념 및 교육목표 인민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민학교 1, 2, 3, 4학년의 음악교과서 4권을 대상으로 교과내용을 가창곡, 시창곡, 기악곡, 감상곡의 4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별 내용들을 가사, 조성, 박자, 형식, 형태, 음역, 빠르기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고찰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교육목표는 모든 인민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 새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육과정의 내용은 정치사상적 교육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의 내용을 4가지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음악교과서 구성은 가창영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시창과 기악, 감상부분은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의 전체악곡의 각 영역별 내용들을

19) 이해경, 「북한의 인민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사의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및 김일성가계 우상화, 적개심 고취, 사회주의 우월성, 집단 조직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악곡의 조성은 민속조의 곡에 원칙을 두고 있으며, 박자는 2/4박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형식은 시창곡을 제외하고 두 도막 형식이 많이 쓰이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빠르기에서는 보통 빠르게가 가장 많았고, 느리게나 빠르게는 보통 빠르게에 비해 적게 사용되고 있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음악용어는 두음법칙과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로 남한과는 서로 다르게 쓰이는 용어가 있으며 의미가 같으나 용어가 다른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민학교 음악교과서는 음악교과목 본래의 교육목적보다는 정치사상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음악외적 가치에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남한의 음악교육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활발한 음악적 교류와 음악학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보완할 때 남북한 초등학교의 이질적인 요소의 간격은 좁아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각 가창곡, 기악곡, 감상곡, 시창곡을 학년별로 나누어 인민학교의 영역별 구조를 알 수 있게 하였고 종합적으로 가사, 박자, 내용, 형식, 형태, 음역, 빠르기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었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자세하게 분류한 것이 좋았으나 음역의 경우 이해가 어려웠다.

2) 이수미 「북한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²⁰⁾

이수미의 「북한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다른 체제 속에 달라진 이념과 감정, 가치관 등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질적인 요소가 교육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북한의 교육과 실제 음악 교육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밝히고, 남북한의 음악 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과 남한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고등중학교 교과서를 학년별, 영역별로 분석하였으며, 남·북한의 음악 용어, 개량된 악기를 비교 분석하고, 남·북한 음악교과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북한 음악의 사상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음악교과서의 설명 기준을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유일한 척도로 삼고 있고,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악곡보다 가창곡 위주이며, 합창형태가 많았는데 이는 정치사상 교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전통음악은 소개되지 않고, 전통악기를 개량화하여 서양음악과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양의 시창곡을 수록하고 있어 가창곡의 보급과 음악의 대중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악 용어에 있어서 순수한 옛 우리말 표현도 쓰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태리 음악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외국 작곡가를 소개 할 때는 소련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역별 분류를 원형 도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쉬웠고 남북한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개량악기를 조사한 것이 좋았다. 그러나 시창곡이 단

20) 이수미, 「북한 음악 교육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순하게 제목만 나열되어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며, 표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3) 김지연 「남·북한의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²¹⁾

김지연의 「남·북한의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에서는 반세기가 넘게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분단되어 살아온 남·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북한 음악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음악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그들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두고 있으며, 음악교육 이념과 목표 및 내용을 비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을 각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체사상을 그들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일반 교양교육, 기술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정치사상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학제는 4-6-4(6)제로서 인민학교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으로 하고, 유치원 1년의 과정을 포함해서 고등중학교 6년까지 11년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음악교과서는 가창곡을 중심으로 시창곡, 기악곡, 감상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창곡은 독립단원으로 설정될 만큼 중점적으로 교육되고 있다. 기악곡은 가창연습과 병행하도록 되어있고, 순수한 기악곡은 없다. 한편 감상곡은 자국의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된 곡들로 악곡의 형태는 다양하나 기악곡

21) 김지연, 「남북한의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악보가 없어 정확한 악기편성을 알 수 없다.

창작 영역은 4학년 시창 부분에서 처음으로 총 6번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사의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사회주의 우월성, 적개심 고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의 음악교육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음악은 정치 사상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공산주의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교육은 통일 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질화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하여 작은 부분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한 학년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연구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도구

북한의 교육과정과 남한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였으며 1996년 개정되었고, 평양의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간된 북한의 중학교 1, 2, 3학년 음악교과서를 연구도구로 하였다.

1996년 통계청에 발표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음악교과는 4학년 까지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자료센터에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학교 5학년에서도 음악교과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5개의 고등중학교 교과서를 자세하게 연구하고자 고등중학교 1, 2, 3학년 음악교과서만을 분석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연구를 위하여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의 음악교과서를 대출하였다. 북한교과서는 특수 자료로 분류되어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추천서를 받아 통일부에 등록을 한 후에 교과서를 대출할 수 있었다. 다른 자료로는 북한이해 등 북한에 관련된 책과 북한뉴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의 생활상과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다.

한국 교육인적 자원부와 통일부에서 남북한의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을 알아보았으며, 북한의 중학교 5개의 음악교과서 중에 1, 2, 3학년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을 분석하였다. 음악교과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시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것을 빠르기, 박자, 조성,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특별히 가사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서 가창영역 뿐 아니라 기악과 감상, 시창영역에 나온 가사의 주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론영역과 교과서에 나온 음악용어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음악교과서 분석의 방법이다. 북한의 음악교육과정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을 남한의 7차 음악교육과정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음악교과서의 특성상 남한과 동일하지 않아서 남한의 활동 영역(가창, 기악, 창작, 감상)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시창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해 영역(가락, 박자, 조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박자, 조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를 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V 북한의 중학교 1, 2, 3학년 음악교과서 내용 분석

북한의 중학교 1, 2, 3학년 음악교과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고 활동 영역과 이해 영역으로 나누어 각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1. 북한 음악교과서의 특징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학년은 48쪽, 2학년은 55쪽, 3학년은 52쪽으로 되어있다. 단원은 1, 2학년은 20과 3학년은 19과로 되어 있으며, 보충교재가 4~6곡이 수록되어 있다. 집필자는 대부분 비슷하며 부교수와 학사의 직분으로 되어 있다.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구성

학년	쪽수	과	보충곡	집필자	출판사	출판년도
1	48	20	5	김미빈, 김승길, 조태봉, 송광철	교육도서출판 사	1996년
2	55	20	6	김미빈, 김승길, 조태봉, 송광철	교육도서출판 사	1996년
3	52	19	4	송광철, 김미빈, 김군일, 조태봉	교육도서출판 사	1996년

2. 전체 악곡의 영역별 비중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는 영역별로 가창, 시창, 기악, 감상,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가창곡과 가사가 있는 시창곡이 전체의 61%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시창이나 가창 이외에 감상이나 기악영역에서도 가창을 함께 다루는 곡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가사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2>는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영역별로 나누어, 교과서 전체 단원 중에 영역별로 차지하고 있는 단원의 비중을 알아보았다. 기악영역에는 <기악과 노래>도 포함시켰다.

<표 2> 음악교과서 영역별 비중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가창	5(25)	5(25)	4(21)	14(24)
시창	8(40)	8(40)	7(37)	23(39)
기악	2(10)	2(10)	2(10.5)	6(10)
감상	3(15)	3(15)	4(21)	10(17)
이론	2(10)	2(10)	2(10.5)	6(10)
계	20	20	19	59(100)

* ()는 %를 나타낸다.

<표 2>를 살펴보면 교과서 영역별 비중이 3개의 학년을 평균적으로 가창 영역이 24%, 시창영역이 30%, 기악영역이 10%, 감상영역이 17%, 이론영역이 10%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별 비중으로는 시창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가창단원의 비중이 크지만 시창, 감상, 기악영역에서도 가창영역을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창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창 영역이 제일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은 가창을 위한 시창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창 단원마다 창작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창작 영역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음악교과와 비교해 보면 남한은 가창, 기악, 감상, 창작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남한은 한단원에 한 가지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7차 교육과정 음악과에는 우리 전통문화의 음악유산을 강조하여 국악의 비중이 높아진 것에 비해, 북한교과서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악곡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전체악곡이 북한만의 창작곡인 것으로 보아 전통이라는 기준의 해석이 남한과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외국의 악곡도 단 한곡도 소개 되지 않았는데 이는 음악교육을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차례이다. 전체 20과로 되어 있고 가창, 기악, 감상, 시창,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충교재가 가창곡으로 5곡이 있다. 시창 단원이 8과로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창단원 안에 창작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악기나 감상 단원 그리고 이론 단원의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다른 영역과 통합되지 않은 한 단원 전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3>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학년 차례²²⁾

제 1과. 김일성장군의 노래.....	2
제 2과. 《도》대조시창 (1, 2)	5
제 3과. 김정일장군의 노래.....	6
제 4과. 음렬과 기본계단, 전음과 반음, 변음기호, 오선과 음고기호.....	8
제 5과. 녀성중창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감상.....	10
제 6과. 《도》대조시창 (3, 4)	12
제 7과. 소년애국가.....	14
제 8과. 《도》대조시창 (5, 6)	16
제 9과. 가야금.....	18
제 10과. 《도》대조시창 (7, 8)	21
제 11과. 대동강.....	23
제 12과. 가야금독주 《초소의 봄》 감상	25
제 13과. 《도》대조시창 (9, 10)	27
제 14과. 소리표와 쉼표, 박자와 리듬.....	29
제 15과. 《도》대조시창 (11, 12)	32
제 16과. 나의 조국 어머니 품아.....	34
제 17과. 《도》대조시창 (13, 14)	36
제 18과. 목관 3중주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 감상.....	38
제 19과. 《도》대조시창 (15, 16)	40
제 20과. 김정일원수님 계시어 우리도 있어요.....	42

보충교재

자작가.....	44
하늘높이 날리는 로동당기발.....	45
언제나 함께 계세요.....	46
장산의 피팔새.....	47
그 말씀 안고 자라요.....	48

22)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p1

3. 활동영역에 의한 분류

활동영역으로는 가창, 가사 주제, 기악, 감상, 창작, 시창을 학년 별로 분석하였다.

1) 가창

가창은 언어의 매개가 되므로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주체적 문예이론> 중 세 번째 방침에 보면 ‘기악음악보다는 노래를 중시하는 방침’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가창을 통하여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정치사상교화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가사의 내용은 주로 김일성부자를 찬양하거나 애국심이나 공산주의를 고취시키는 내용이다.

다음의 <표 4>은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의 가창곡을 자세하게 알기위해 빠르기, 형식, 박자, 조성, 작곡자, 작사자로 분류해 보았다. 모든 곡은 북한에서 창작한 곡으로 사상성이 느껴진다. 첫 단원부터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제 3단원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르기는 기본적인 빠르기 용어 대신에 곡에서 요구하는 느낌까지 표시하고 있다. 형식은 두 도막 형식이 가장 많고, 세도막 형식도 있다. 박자는 거의 4/4박자로 되어 있고, 조성도 C 장조가 대부분으로 중학교 1년 과정은 단순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사자와 작곡자는 거의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사상이나 작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1학년 가창 영역

차 례	제 목	빠 르 기	형 식	박 자	조 성	작 사, 작 곡
제1과	김일성 장군님 노래	보통속도로 (Moderato)	두도막 형식 (20마디)	4/4	C	리찬, 김원균
제3과	김정일 장군의 노래	장중하고 폭넓게 (Maestoso largo)	두도막 형식	4/4	Bb	신운호, 설명순
제7과	소년애국가	힘 있고 씩씩하게 (Energiaco con forza)	세도막 형식	4/4	C	혁명 가요
제16과	나의 조국 어머니 품아	밝은 서정을 담아 (Serenio lirico)	두도막 형식	4/4	C	명준섭, 임기송
제20과	김정일 원수님 계시어 우리도 있어요	밝고 희망차게 (Chiara con desiderio)	두도막 형식	4/4	C	김련실, 계원국

중학교 2학년에서도 제1과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다. 빠르기는 ‘보통속도로’인 Moderato가 많았고, 빠르기와 나타냄 말이 같이 표기되어 있다. 형식은 두 도막 형식과 세도막 형식이 거의 같은 비율로 되어 있으며, 제4과는 32마디로 이루어져있다. 박자는 4/4 박자가 가장 많고 그

외 3/4 박자, 2/4 박자인 곡도 나오고 있다. 조성은 1학년과 같이 모두 다장조이다.

〈표 5〉 2학년 가창 영역

차 례	제 목	빠 르 기	형 식	박 자	조 성	작 사, 작 곡
제1과	친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노래	보통 속도로 (Moderato)	세도막 형식	4/4	C	집체, 리학범
제4과	아름다운 만경대	보통 속도로 명랑하게 (Moderato Squillante)	세도막 형식(32마디)	3/4	C	박세영, 김옥성
제8과	올린다 펴진다 혁명의 노래	행진조로 씩씩하게 (Alla marcia con forza)	세도막 형식	2/4	C	김정태, 김성용
제16과	정일봉 찾아서 가는길	자랑차게 행진조로 (Imponente alla marcia)	두도막 형식	4/4	C	김영심, 김병수
제20과	소년단원 우리는 맹세다저요	보통속도로 씩씩하게 Moderato con forza	두도막 형식 (14마디)	4/4	C	김런실, 계원국

중학교 3학년 교과서도 다른 학년과 동일하게 제 1과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로 김정일을 우상화 하는 노래로 시작한다. 〈표 6〉 에서와 같이 가창곡은 4곡으로 되어 있고, 곡마다 피아노 반주가 포함된 악보로 기보되어 있다. 14과의 조선민요인 「풀무타령」은 확대

된 세도막 형식으로 28마디이다. 제19과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일 원수님」은 김정일을 나라의 아버지로 우상화 하고 있다. 조성은 em의 곡과 G장조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곡가는 다른 학년과 같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작곡한 곡으로 개인의 사상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3학년 가창 영역

차 례	제 목	빠르기	형식	박자	조성	작사, 작곡
제1과	친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خم모의 정을 담아 (Con sentimento di rispetto)	세도막 형식	3/4	G	백인준, 김제선
제10과	소년 빨찌산의 노래	행진조로 (Alla marcia)	작은 세도막 형식 (20마디)	4/4	e m	김학연, 리건우
제14과	풀무타령	보통 속도로 (Moderato)	확대된 세도막 형식 (28마디)	2/4	G	조선 민요
제19과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일 원수님	금지높이 (Fiero)	두도막 형식	4/4	G	전동우, 김원일

2) 가사 주제

가창, 기악, 시창, 감상영역에 나온 가창곡을 중심으로 가사의 주제를 분석해보았다. 〈표 7〉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28%이고, 김정숙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8%,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25%,

반미, 반일 감정을 나타내는 내용이 4%, 자연을 찬양 등 기타가 18%로 모든 곡이 사상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가사 주제에 따른 개수

	김정일 부자 찬양	김정숙 찬양	애국심 강조	반일, 반미	기타	합계
1학년	3	1	3	1	3	11
2학년	4	1	5	2	2	14
3학년	3	1	1	1	5	11
계	10(28%)	3(8%)	9(25%)	4(11%)	10(28%)	36

다음은 가창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 8> 는 김정일가계를 나타낸 단어의 개수를 알아보았다. ‘김정일’이 14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원수, 지도자, 수령, 동지, 령도자, 아버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표 8> 김정일 가계를 나타낸 단어

단어	김 일 성	김 정 일	원 수	지 도 자	수 령	동 지	령 도 자	아 버 지	어 머 니	대 동	만 경	계
개수	4	14	16	7	3	3	1	2	5	4	5	64

다음의 <표 9> 는 북한의 사상성을 나타낸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는데 ‘조국’, ‘혁명’ 이 많이 나오고 애국, 조선, 공산, 동무 등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사상성이 짙은 단어들을 가창곡의 가사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북한의 사상성을 나타낸 단어

단어	혁 명	조 선	조 국	애 국	공 산	만 세	맹 세	자 유	목 숨	인 민	로 동	동 무	계
개수	10	7	14	4	3	7	3	1	1	3	3	3	59

<표 10> 은 반미, 반일을 나타내는 단어로 미국이나 일본을 ‘처부수자’ 등의 비하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놈’, ‘총’, ‘칼’ 등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표 10> 반미, 반일을 나타내는 단어

단어	총	칼	싸움	불	피	원 쭈	붉 은	놈	빨 찌 산	계
개수	3	3	2	2	7	5	3	9	1	35

3) 기악

기악곡은 한 학년에 한 단원씩 소개되고 있다. 또한 ‘기악과 노래’라는 단원이 한 학년에 한 단원씩 있어서 이 부분을 기악영역에 포함시켰다. 기악곡은 전 학년 모두 노래와 악기가 같이 연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주나 합주를 위한 기악곡은 볼 수 없으며 모든 곡에 가사가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북한 음악교과서 1학년 제 9과에는 가야금 연주법과 연주자세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가야금의 구조 및 음색 등은 부록 3에 설명하였다. 제 11과에는 대동강을 노래하며 하모니카, 소금, 대금, 풍금의 합주곡이 있다. 2학년에는 제 12과의 《반일전가》의 합주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적개심을 나타내는 가사와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 합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5과에서는 손풍금의 형태와 부분의 이름, 연주자세와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3학년 교과서에는 제 5과에 기악과 노래 《꽃 피는 처녀》가 손풍금, 소고, 대고, 풍금의 합주로 되어 있다. 제 9과에는 단소의 생김새와 연주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소의 구조와 생김새는 부록 1에 설명하였고, 저대의 구조와 생김새는 부록 2에 설명하였다.

〈표 11〉 기악 영역

학 년	차 레	제 목	악기 편성 및 빠르기	박 자	조 성
1 학 년	제9과	가야금	가야금 연주자세 및 여러 가지 연주법 소개		
	제11과	대동강	하모니카, 소금, 대금, 풍금 합주 보통속도로 밝게 Moderato chiara	4/4	C

2 학 년	제12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 <반일 전가>	하모니카, 소고, 대고, 풍금합주 느리지 않고 힘있게 Andante non troppo con energia	6/8	C
	제15과	손풍금	손풍금 형태와 부분의 이름, 연주자세 사용법 소개		
3 학 년	제5과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	손풍금, 소고대고, 풍금합주 애절하게 Amore	8/9	G
	제9과	단소	단소의 생김새와 연주법 소개		

4) 감상

감상곡은 학년마다 3곡~4곡이 수록되어 있다. 1학년에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장깊이 시기고 학생들의 사상 감정을 서정, 깊게 노래하고 있다. 제 12과 가야금 독주 《초소의 봄》은 ‘조국을 지켜 선 초소에서 봄을 맞은 인민국군인들의 아름다운 사상 정서적 감정과 전투기백으로 충만된 보람찬 초소생활을 민족적 정서가 풍만한 룰동적이며 락천적인 선율로 훌륭히 펼쳐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 18과 목관 3중주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는 ‘깊은 사상정서를 다정한 꽃분이네 삼형제의 3중창으로 특색 있는 민족목관 악기들인 단소와 고음 저대, 중음 저대의 3중주로 인상 깊게 잘 형상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2학년에 제 6과 《세상에 부럽없어라》는 합창곡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따사로운 품에 안겨 사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끝없

는 행복을 깊은 정서 속에 진실하게 담고 있다. 제 13과 취주악 《승리의 열병식》은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있는 행진곡 가요를 취주악으로 편곡 형상한 작품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자의 기세높이 열병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 18과에는 손풍금 독주 《사회주의 지키세》는 기악작품으로 규모가 작고 구조가 간결한 기악소품으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3학년의 제 4과는 남성합창으로 김정일 원수님을 우리 무장대오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우러러 모신 인민들과 군인들의 끝없는 긍지와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제 7과 기악중주 역시 김정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형상하기 위해 편곡한 곡이다. 제 12과 단소 2중주도 김일성을 높이며 혁명의 큰 뜻을 키워 오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숭엄한 감정을 반영한 원곡의 사상내용을 민족 목관악기의 형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 16과 경음악 감상곡도 김일성 원수님의 고매한 품모와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도 미래도 영원히 맡기고 따르려는 혁명전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서정깊이 노래하고 있다고 하며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다.

감상곡은 가요나 영화에 나오는 곡을 편곡한 곡이 많이 있고 감상곡마다 긴 설명이 있어서 감상의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감상곡 역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거나 그들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등 사상적인 내용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표 12>은 감상곡의 내용을 학년별로 내용, 박자, 조성, 작곡자, 작사자로 분류하였다.

〈표 12〉 감상 영역

학 년	과	제 목	내 용	박 자	조 성	작사, 작곡
1 학 년	제5과	여성중창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 감상	중창	4/4	Eb	명준섭 함기찬
	제12과	가야금 독주 <초소의봄> 감상	기악			
	제18과	목관3중주 <사랑하는 오빠와 우리 삼형제>감상	단소,고음저대, 중음저대 3중주			
2 학 년	제6과	합창 <세상에 부림 없어라> 감상	합창	4/4	C	집체 김혁
	제13과	취주악 <승리의 열병식> 감상	취주악-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기악합주			
	제18과	손퐁금독주 <사회주의 지키세>감상	손퐁금	4/4	C	
3 학 년	제4과	남성합창<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감상	합창	4/4	Eb	신운호 김동철
	제7과	기악중주<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감상	기악중주	6/8	G	혁명가 요
	제12과	단소2중주<만경대는 혁명의 요람>감상	기악	6/8	Bb	
	제16과	경음악< 기쁨 신고 달리는 말발굽>감상	경음악	4/4	F	

〈표 13〉는 감상곡에 나온 가사를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것이 36%, 애국심 및 충성심을 나타낸 것이 27%, 체제찬양이 27%로 감상곡에서도 모두 사상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감상곡의 가사 주제별 분류

	김정일 부자 찬양	애국심 및 충성심	체제찬양	반일, 반미	합계
1학년	1	2			3
2학년	1		2		3
3학년	2	1	1		4
계	4(36%)	3(27%)	3(27%)		11

5) 창작

창작은 각 학년의 시창이 있는 단원에 창작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 각각의 문제는 제시된 리듬이나 선율을 보고 창작하게 하고 있다. 보통 4마디의 작은악절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1학년에서는 2/4박자, 3/4박자, 6/8박자의 리듬을 빈 마디에 채우거나 문답식의 리듬을 완성 하게 한다. 2학년에서는 선율을 채우는 창작을 한다. 제시된 선율을 보고 빈 마디를 완성하거나 문답식 선율을 완성한다. 3학년에서도 주어진 동시를 보고 선율을 만드는 창작이 나온다. 3학년에서도 여러 가지 박자로 창작을 하게 되는데 9/8박자의 창작도 보여 진다.

〈표 14〉 1학년 창작 영역(리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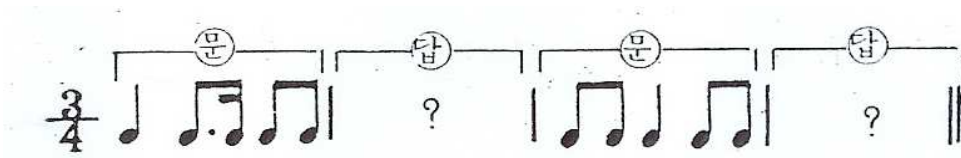
차 례	내 용
제 2과	제시된 네 마디 악단 ²³⁾ 의 셋째, 넷째 마디를 2/4박자에 맞게 빈 박자 채워 넣기
제 6과	제시된 네 마디 악단의 셋째, 넷째 마디를 3/4박자에 맞게 빈 박자 채워 넣기
제 8과	제시된 네 마디 악단을 4/4박자에 맞게 빈 박자 채워 넣기
제 10과	제시된 네 마디 악단의 셋째, 넷째 마디를 2/4박자에 맞게 채워 넣기
제 13과	제시된 3/4박자 네 마디 악단의 첫째와 둘째 마디를 보고 문답형식으로 둘째와 넷째마디 채워 넣기
제 15과	제시된 6/8박자 네 마디 악단의 첫째 셋째 마디를 보고 문답형식으로 둘째와 넷째마디 채워 넣기
제 17과	제시된 3/4박자 네 마디 악단의 한마디의 동기를 발전시켜 나머지 세 마디 완성하기
제 20과	제시된 6/8박자의 네 마디 악단에 한마디의 동기를 발전시켜 나머지 세 마디에 종지가 있는 리듬 만들기

다음 〈악보 1〉은 1학년 제 13과의 창작 부분이다. 3/4박자의 리듬을 문답형식에 맞추어 넣는 것이다. 1학년에서는 음정이 없이 리듬 창작이 대부분이나 2학년부터는 음정과 리듬을 오선에 창작하도록 하고 있다.

〈악보 2〉은 3학년 제3과에 있는 창작부분으로 제시된 동기를 바탕으로 4마디를 창작하는 것이다.

23) 악단은 우리나라의 작은악절(4마디 악곡)을 의미한다.

<악보 1> 1학년 제 13과 창작²⁴⁾



<표 15> 2학년 창작 영역(선율 만들기)

제 2과	제시한 4/4박자 리듬을 정서적 성격에 맞게 선율 만들기
제 5과	제시된 3/4박자 네 마디 악단을 매 소절의 선율이 자연스럽게 오선의 빈자리에 선율 음을 만들어 넣기
제 7과	오선의 빈자리에 6/8박자의 선율 음 찾아 쓰기
제 9과	제시된 2/4박자 선율에 맞게 답 선율 만들기
제 11과	첫째, 셋째 마디의 제시된 문제 선율에 맞게 6/8박자 답 선율 만들기
제 14과	제시된 4/4박자 두 마디의 동기선율의 리듬모양과 같거나 비슷하게 셋째, 넷째마디 답 선율 만들기
제 17과	제시된 6/8박자 두 마디의 동기선율의 리듬모양과 같거나 비슷하게 셋째, 넷째 선율 만들기
제 19과	제시된 4/4박자 동기에 어울리게 답 선율을 만들되 첫 번째 악단은 이어지는 느낌으로, 둘째 악단은 끝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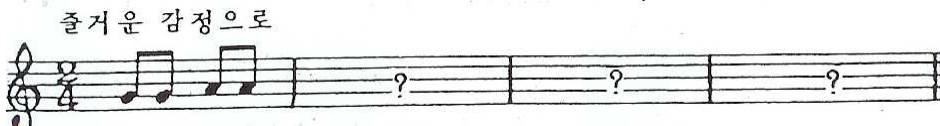
24) 북한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6, p28

〈표 16〉 3학년 창작 영역(동기에 의한 한 개 악단의 선율 창작)

제 3과	1. 제시된 2/4박자 한 마디의 동기를 발전시켜 네 마디의 악단 완성하기
제 6과	제시된 3/4박자 한 마디의 동기를 발전시켜 네 마디의 악단 완성하기
제 8과	제시된 4/4박자 한 마디의 동기를 발전시켜 네 마디의 악단 완성하기
제 11과	제시된 6/4박자 첫째 소절과 리듬을 동일하게 둘째, 셋째 소절을 만들고 마지막 소절은 주음에서 긴 리듬으로 끌어내주기
제 13과	제시된 9/8박자 두 마디의 동기와 같이 셋째와 넷째 마디 선율을 만들기
제 15과	2. 제시된 4/4박자 네 마디의 첫째 악단을 발전시켜 네 마디의 둘째 악단 만들기
제 17과	제시된 6/8박자 네 마디의 첫째 악단을 발전시켜 네 마디의 둘째 악단 만들기

〈악보 2〉 3학년 제 3과 창작²⁵⁾

제시된 동기를 발전시켜 선율을 만들어 보시오.



6) 시창

1학년 시창곡은 20과 중 8과로 40%의 많은 단원을 차지하고 있다. 1학년 모든 단원이 《도》 대조시창으로 되어 있으며 2/4박자 4/4박자, 3/4박자의

25)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3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6, p8

기본박자의 2분음표나 4분음표의 순차 진행에서 점차적으로 점음표와 도약 음정이 나온다. 시창곡 중에 가사가 있는 노래 들이 있는데 제 10과의 「만경봉 피꽃새」는 만경봉의 자연을 노래한 곡이고, 제 13과 「고향의 봄」은 남한에서도 많이 알려진 곡이다. 제 15과의 「어머님의 그 충성 따라 배워요」, 제 17과의 「다섯손가락」의 짧은 곡이 시창곡으로 제시되어 있고, 과제곡으로 「어데까지 왔니」 「십진가」는 혁명가요이다.

<표 17> 1학년 시창 영역-<도> 대조²⁶⁾시창

차레	박자	내용
제 2과	2/4	1. C장조 도~라 음 까지 순차진행 2. 미에서 높은 도까지 순차진행
제 6과	2/4	3. 솔~도까지 2도 순차 진행 4. 3도 도약과 3도 화음 유의하기
제 8과	2/4	5. 3도 도약진행 유의하기 6. 두 조가 동시에 제시된 가락 부르기
제 10과	4/4	7. 1조 ,2조로 나누어 부르기 8. 만경봉 피꽃새- 두 조로 나누어 부르기
제 13과	4/4	9. 두 조가 나누어 문답식으로 부르고 대조적인 가락을 동시에 부르기 10. 고향의 봄-가사와 함께 부르기
제 15과	3/4	11. 3도 도약과 점 리듬 12. 어머님의 그 충성 따라 배워요- 가사와 함께 서정을 담아 사랑스럽게 부르기
제 17과	2/4	13. 두 개의 조가 대조식으로 부르기 14. 다섯손가락-가사와 함께 밝고 명랑하게 부르기
제 19과	4/4	15. 리듬 시창 16. 홀라리 - 가사와 장단 치며 부르기

26) 대조란 남한의 장조를 말한다.

〈악보 3〉은 1학년 제13과에 있는 시창부분이다. 시창은 먼저 음정연습이 나오고, 가사 없는 시창곡이 나오며, 그 다음 가사가 있는 시창곡이 한 곡씩 수록되어 있다.

〈악보 3〉 1학년 제13과 시창²⁷⁾

[음정연습]

9 좀 빠르게 (Allegretto)

27)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6, p27

2학년 시창곡은 학년과 같이 20과 중에 8과인 40%가 시창곡이다. 2학년에서는 《도》대조 시창과, 같은 으뜸음조인 《라》소조시창이 나오며, 기본박자 이외의 6/8, 3/8/, 12/8의 박자의 시창이 나온다. 단원마다 가사가 있는 시창곡이 제시되는데 대부분 조국을 찬양하거나 김일성부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이고, 과제에는 혁명가요가 나오는 단원이 있다. 그러나 제 7과의 「세간놀이」, 제 14과의 「동식물놀이」 같이 사상성이 느껴지지 않는 노래도 있다.

<표 18> 2학년 시창 영역

제 2과	3/4	1. 3도 도약과 화음시창 2. 새 봄의 노래 - 천천히 류창하게
제 5과	2/4	3. 6도 도약 진행 4. 어머니 충을 쏘신 자욱 빛나요-보통속도로 정겹게
제 7과	6/8	5. 16분 음표, 6도 도약 진행 6. 세간놀이 - 보통속도로 재미있게
제 9과	4/4	7. 2성부 진행 시창 8. 정일봉에 해맞이 가자 - 보통속도로 희망에 넘쳐서
제11과	12/8	9. 조선장단과 함께 10.오직 한 마음-보통속도로 경건한 마음을 담아
제 14과	4/4	11. 5도 동형진행 순차진행 시창 12. 동식물놀이- 약간빠르게 재미나게 가사 시창
제17과	3/8 6/8	13. 16분음표, 올림술 시창 14. 숙이의 노래- 좀 느리게
제19과	4/4	15. 셋잇단음표 시창 16. 어른동의 둥근달- 보통속도로 정서 있게

3학년 시창 영역은 19과 중 7과이다. 3학년에서는 《쓸》 대조시창과 《미》 소조시창이 나오고, 단원마다 가사가 있는 시창곡이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부를 느낄 수 있는 시창곡이 나오고 도약진행이나 리듬이 더 발전되어 나온다.

〈표 19〉 3학년 시창 영역

제 3과	2/4	1. 두 조로 나누어 돌림노래 형식 시창 2. 못 잊을 어머니 모습- 정답게
제 6과	2/4	3. 두 조로 나누어 쉽표 표현하기 4. 보물 찾아내기- 보통속도로 흥겹게
제 11과	3/8	7. 두 조로 나누어 두 단락의 가사 16분 음표 리듬 유의하기 8. 나는 나는 크거든- 약간 빠르고 즐겁게 가사 시창
제 13과	4/4	9. 두 조로 나누어 리듬 시창하기 10. 우리는 꽃송이 우린 꽃나비
제15과	6/4	11. 3/4박자 두 소절을 단위로 서정 장단 치며 부르기 12. 〈우리 당의 한 품속에 너도 나도 행복해라〉 중에서- 보통속도로 정서를 담아 부르기
제 17과	4/4 6/8	13. 두 조의 문답식 시창 14. 우리 선생님 -꾸밈음, 2성부

4. 이해 영역에 의한 분류

이해 영역에 의한 분류는 박자, 조성, 이론은 학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박자에 의한 분류(개수)

박자의 분포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은 4/4 박자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학년 에서는 2/4, 3/4, 6/8, 9/8 박자가 한· 두개씩 나오고 있지만 창작부분을 제외하고는 박자분포가 다양하지 않다.

<표 20> 박자에 의한 분류

영역	학년	2/4	3/4	4/4	6/8	9/8	기타	계
가창	1			5				5
	2	1	1	3				5
	3	1	1	2				4
기악	1			1				1
	2				1			1
	3					1		1
감상	1			1				1
	2			2				2
	3			2	2			4
창작	1	1	3	2	2			8
	2	1	1	3	2			7
	3	1	1	2	1	1	4/6(1)	7
계	1	1	3	9	2			15
	2	2	2	8	3			15
	3	2	2	6	3	2	1	16
	전체	5	7	23	8	2	1	46

2) 조성에 의한 분류(개수)

조성에서도 한 학년에 한 개의 조성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장조(C)의 곡이 5곡의 가창곡 중에 4곡인 80%가 다장조의 곡이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가창곡 5곡 모두가 다장조 곡이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사장조(G)의 곡이 4곡의 가창곡 중에 3곡인 75%가 사장조곡이다. 창작곡은 모두 다장조(C)의 곡이다.

<표 21> 조성에 의한 분류

영역	학년	장조					단조	계
		다 C	사 G	바 F	내림나 Bb	내림마 Eb	마 em	
가창	1	4			1			5
	2	5						5
	3		3				1	4
기악	1	1						1
	2	1						1
	3		1					1
감상	1					1		1
	2	2						2
	3		1	1	1	1		4
창작	1	8						8
	2	7						7
	3	7						7
계	1	13			1	1		15
	2	15						15
	3	7	5	1	1	1	1	16
	전체	35	5	1	2	2	1	47

3) 이 론

이론은 각 학년마다 두 단원씩 기초적인 음악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한 단원에 통합적으로 제재곡과 그 단원에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한 단원 전체에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창이나 시창영역에서도 단원 끝 부분에 이론이 짧게 설명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1학년 제 1과(가창영역)에 설명되어 있는 이론이다.

‘가요란 가사와 선율이 하나로 결합된 가장 간결한 성악작품형식. 가요에는 송가, 혁명가요,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책해설가요, 민요 등이 있다. 송가란 수령과 당, 국가를 높이 찬양한 노래를 말하며, 혁명가요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노래를 말한다. 서정가요란 아름답고 풍만한 정서, 부드러운 선율과 따뜻하고 다정한 울림을 주는 노래를 말하고, 민요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 근로 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불리워 온 노래이다.’²⁸⁾

중학교 1학년에는 두 단원의 이론영역이 있다. 제 4과에서는 기본계단(음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악보를 나타내는 오선과 음자리표(음고기호)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제 14과에서는 소리표(음표)와 쉼표, 2/2, 2/4 등의 박자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 표는 교과서에 나온 이론을 요약하고 남한의 이론과 비교하였다.

28) 북한 중학교 음악교과서 1학년, 교육도서출판사, 1996, p4

<표 22> 1학년 이론

과	북한 이론	남한 이론
제4과	<p>· 음렬과 기본계단, 전음과 반음, 변음기호, 오선과 음고기호</p> <p>①음렬-음악에 쓰이는 모든 음들이 높이순서에 따라 놓인 것을 말함.</p> <p>②기본계단은 독자적인 이름을 가진 7개의 음(푹금의 흰건반)을 말하며 파생계단은 기본계단에서 갈라져 나온 계단(검은 건반)을 말함.</p> <p>③전음과 반음</p> <p>④오선이란 음의 높이를 표시하기 위해 가로 나란히 그은 다섯 개의 선을 말함.</p> <p>⑤음고기호란 오선의 선과 간이 어느 옥타브의 어떤 음인가를 알려 주기 위한 기호이고 음고기호에는 고음기호, 중음기호, 저음기호가 있다.</p>	<p>①음계</p> <p>-어떤 음을 으뜸음으로 하여 일정한 형식에 대한 음 높이를 차례대로 늘어 놓은 것을 음계라고 한다.</p> <p>③온음과 반음</p> <p>④음자리표</p> <p>-음의 자리를 나타내주는 기호</p>
제14과	<p>·소리표와 쉼표, 박자와 리듬</p> <p>①소리표-음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p> <p>②쉼표- 음악이 흐르는데서 울림이 없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p> <p>③박자- 기준이 되는 소리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강약관계를 나타내는 수단</p> <p>④박자기호- 박자의 표식</p> <p>⑤리듬- 같거나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소리들이 일정한 박자와 속도를 가지고 흘러 가는 것.</p>	<p>①음표</p> <p>②쉼표</p> <p>③박자</p> <p>⑤리듬</p>

중학교 2학년에서도 두 단원에 이론이 설명되어 있다. 제 3과에는 음정, 즉 음의 간격을 장, 단, 증, 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고, 제10과에서는 화음과 화음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제2과와 제 18과에 조성과 우리나라 음계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음악이론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같으나 용어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2학년 이론

과	북한 이론	남한 이론
제 3과	<p>①음정이란 동시에 울리거나 차례로 울리는 두 음 사이를 말함.</p> <p>②음정의 크기-음정의 크기에는 계단적 크기와 전음적 크기가 있다. 계단적 크기: 두 음 사이의 계단의 수 전음적 크기: 두 음 사이에 있는 전음과 반음의 수</p> <p>③음정의 전회- 화성적 음정에서 아래 음을 옥타브우로 또는 위의 음을 옥타브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함.</p>	<p>①음정-두 음 사이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하며, 그 사이에 포함되는 온음과 반음의 수에 따라 완전, 장, 단, 증, 감 등을 붙인다.²⁹⁾</p> <p>③자리바꿈</p>
제10과	<p>①화음-3개 또는 그 이상의 음들이 함께 울리는 것.</p> <p>②합성음-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음들이 함께 울리는 것</p> <p>③3화음의 종류- 대3화음, 소3화음, 감3화음, 증3화음</p> <p>④7화음의 종류- 대소7화음, 소7화음, 감소7화음, 감7화음</p> <p>⑤화음의 전회- 화음을 이루는 음들을 한</p>	<p>①화음-밑음에 3도와 5도의 음을 쌓아 올린 것을 3화음이라고 한다.</p> <p>③장3화음 단3화음</p> <p>④장 7화음, 단 7화음</p> <p>⑤3화음의 자리바꿈</p>

	<p>옥타브 우 또는 아래로 옮겨서 화음의 제일 아래 놓이게 하는 것.</p> <p>⑥협화화음- 화음의 울림이 부드럽게 조화되어 울리는 화음</p> <p>⑦ 불협화화음- 화음의 울림이 거칠게 조화되지 않게 울리는 화음.</p>	<p>-밑음, 3음, 5음 중 어느 음이 맨 아래 성부에 놓이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p>
--	--	---

<표 24> 3학년 이론

과	북한 이론	남한 이론
제2과	<p>①조식-하나의 주음에 기초하여 안정음과 불안정음들이 인성(끌림성)관계로 결합된 음들의 조직 체계. 대조식과 소조식이 있음.</p> <p>②조성-음악에서 주음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조식의 주체적인 음높이. 대조와 소조가 있음.</p>	<p>①조성- 으뜸음과 음계의 관계를 조라고 하며, 각 조의 성질을 조성이라 함.</p> <p>조성은 장음계를 기초로 한 장조와 단음계를 기초로 한 단음계로 나눔.</p>
제18과	<p>①우리나라 민요조식-우리나라 민요와 그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음악의 대부분은 5음 조식으로 이루어져 있음.</p>	<p>①우리나라 5음계 솔, 라, 도, 레, 미</p>

5. 남북한의 음악용어 비교

분단 이후 단절된 생활과 서로 다른 체제는 언어의 의미와 개념에서 이질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음악용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는 북한의 음악교과서안에 있는 용어 중에서 우리말과 다른 부분을 비교 하였다.

〈표 25〉 음악용어 비교

	북한말	우리말
ㄱ	고음기호	높은음 자리표
	군중가요	대중가요
	굴림소리	편구밈음
	관풍금	파이프 오르간
	기본계단	음계
ㄴ	남성고음	테너
	남성저음	베이스
	녀성고음	소프라노
	녀성저음	알토
	노래이야기	뮤지컬
ㄷ	동명조	같은 으뜸음조
	대고	큰북
	대조	장조
	뜯음줄악기	발현악기
ㅁ	마디선	마딧줄
ㅂ	박절기	메트로놈
	변음기호	임시표
ㅅ	4분소리표	4분음표

	소고	작은북
	소리표	음표
	소조	단조
	선률	선율
ㅇ	악보	보표
	안삼블	양상블
	용근소리표	온음표
	음고기호	음자리표
	2분소리표	2분음표
ㅈ	중음기호	가온음 자리표
	저음기호	낮은음 자리표
	전음	온음
	전회	자리바꿈
	조식	음계
	재청곡	앙코르
ㅊ	총보	오케스트라
표	8분소리표	8분음표
	평행조	나란한조
ㅎ	합성음	악보화음

남한과 북한의 음악용어의 차이는 두음법칙과 외래어표기법의 차이로 서로 다르게 쓰이는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 고음’을 ‘녀성 고음’으로 ‘녀성 저음’을 ‘녀성 저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미를 같지만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온음표는 용근소리표, 변화표는 변음표, 장조는 대조, 단조는 소조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것들은 분단의 세월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뜻을 이해하면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교류와 세계의 개방화 추세로 인하여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통일을 위해 우리의 음악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심화된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반공교육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교육적 상황과 여건을 알아보고 남한의 교육과 비교하므로 통일 이후에 다가올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자 북한의 음악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북한의 음악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교육의 체제와 이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북한은 모든 교육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공산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주체 사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교육의 미학적 관점 중, 관련주의적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음악 예술의 실용적 가치는 음악작품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용적 목적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데, 음악 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 외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예술이 사회주의 이념 교육과 사회주의적 인간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론을 전체적인 내용과 교과서의 형태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음악교육은 가사중심의 사상성 교육이다. 북한의 <주체적 문예이론>에 보면 ‘기악음악보다는 노래를 중시하는 방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가사의 내용을 통하여 당을 위한 사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과서에 나온 가사의 주제를 보면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 하고 김정숙 어머니를 우상화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거나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일, 반미를 강조하기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의 가사를 통해 북한의 사상성을 주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음악은 북한에서 사상성을 가지고 창작한 음악으로 서양음악이나 우리나라의 민요는 찾아볼 수 없고 북한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주체의 음악예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악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음악교육의 목적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발달을 무시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심미적인 체험을 통해 감수성을 하는 부분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32 B.C)가 말한 것 같이 인간 정신의 발달을 위한 원천으로서의 음악 교육적 가능성보다 일반 교양적 수단으로서의 음악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다.

넷째, 악기의 개량은 남한과 다른 음계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므로 연주법이나 음색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분단 이전과는 많은 이질화를 보이고 있으며 사상성을 목적으로 음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나타날 혼란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의 형태를 중심으로 내린 결론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음악교육과정인 활동과 이해영역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북한 음악교과서는 영역별로 가창, 기악, 시창, 감상, 창작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가사가 있는 가창곡과 시창곡이 61%로 가사중심의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악과 감상영역에서도 순수한 기악곡과 감상곡은 없으며. 가사가 있는 기악곡과 감상곡으로 되어있다.

둘째, 북한 음악교과서의 가창영역을 빠르기와 형식, 박자, 조성, 작사 작곡가로 분석해 본 결과 빠르기는 ‘보통 빠르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형식은 두 도막 형식, 박자는 4/4박자가 대부분이었다. 조성도 대부분이 C장조나 G장조로 되어있어 음악적 요소에서 한 가지에 치중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사자와 작곡자는 곡마다 다른 사람이 작곡한 것으로 한 사람의 특징적인 사상이 들어가지 않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성을 포함시킨 창작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시창곡과 창작영역이 강조되어 있다. 한 학년에서 20단원 중 8~9단원은 시창을 중심으로 한 단원이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창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창단원에 포함된 창작의 부분도 남한보다 많은 단원을 차지하고 있어 창의성과 표현력, 실음중심의 음악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론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악이론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용어의 차이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이론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언어의 표기 방식이 달라서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북한 음악교육의 요소들은 남한의 음악교육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통일 이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음악교육 환경에서도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서로 다른 부분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2. 제언

북한의 교육과 북한의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남북한의 심한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서로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후속연구들은 남한과 북한 서로의 교육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곡들이 가사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상성이 담겨있지 않은 곡을 조사해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곡이 북한의 순수한 창작곡인데 서양의 작곡형식을 따르고 있다. 간간히 있는 민요곡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음악교육의 목적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는데 다른 교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는 북한의 음악을 배우고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으로 남북한이 한자리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공연이 실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공연을 보여주고, 직접 배워보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질화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음악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음악교육을 통해 국민 화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민족의 대 통합을 기대해 보게 된다. 이처럼 음악교육은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더 많은 연구와 관심으로 통일을 이루기까지 음악교육 노력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기본도서

「음악」 고등중학교 1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6

「음악」 고등중학교 2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6

「음악」 고등중학교 3학년, 평양 : 교육도서출판사, 1996

참고도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정영택, 허화병 (주) 교학사

고대 평화 연구소 북한 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김길환 조선민족악기총서 「가야금」 평양 : 문예출판사, 1987.

김동규, 「북한학 총론」, 교육과학사, 1999.

김문환(책임편집), 「북한의 인식9-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90.

김영복, 주체음악총서(13) 「주체의 음악계술교육」 북한문학예술종합출판사.

김정일, 「주체음악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재춘 외 3인, 「예비·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 과학사.

림동숙, 조선민족악기총서 「저대」 평양 : 문예출판사, 1987

박태상,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박형섭, 조선민족악기 총서 「단소」 평양 : 문예출판사, 1983.

「북한 365일」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이해 2000」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이해 2003」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유병선, 「북한의 이해와 민족 통일」 도서출판 이화.
이홍수,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한만길, 「북한교육의 구조와특성」 교육 월보.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 신원문화사.

학위논문

권혁주, “남북한 중등음악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지연, “남북한의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수미, “북한 음악 교육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영미,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관한 고찰”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정순, “남·북한 초등(인민)학교 음악 교과서 비교·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이혜경, “북한의 인민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조성숙,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참고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edpolicy.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정보센터

<http://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 주요정책추진현황 > 7차교육정]

ABSTRACT

A Study o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 in North Korea

Yoon Kum Hy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this study has been studied in an effort to compare education environment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o as to investigate the North Korea education environments which are hardly known to South Korea due to the anti-communist education. In addition, the this study has been studied in another effort to recover ethnic homogeneity to prepare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e this study, the educational ideal and system in North Korea has been studied to understand the music education in North Korea, and thoughts implied in the lyrics in the textbooks for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of North Korea middle school have been analyzed in respective parts including singing, instrumental, creation, and appreciation part. In

addition, music terms in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compared, and reformed musical instruments have been studie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textbooks of North Korea shows that their music have focused on the juche ideology and socialist from young children education. Tha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make students be communists and to make them worship Kim Il Sung and his son. In the part of music education,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students and aesthetic side of music have been excluded from the textbooks of North Korea and the instillation of socialist ideology through lyrics has been stressed.

The followings 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school textbooks in North Korea.

First, lyrics including the socialist ideology are the basis of music education in North Korea.

Second, it is easily neglected for the student to feel the beauty of music and to increase the sensibility during his adolescence since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is to educate a student to be a communist.

Third, musical instruments in North Korea have been reformed differing from those in South Korea since those are played in North Korea with the different musical scale, and therefore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in instrument playing technique and tone color.

The followings are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spective parts of the middle school textbooks in North Korea.

First, the music textbook in North Korea may include a singing part, an

instrumental part, a sight-singing part, an appreciation part, a theory part. Specifically, 61% of the entire textbook includes singing and sight-sing piece having lyrics therein.

Second, the singing part of the textbook is biased at some musical constituents such as “Moderato” , “two partial” , “4/4 rhythm” , and “ C major or G major.”

As described above, the music in North Korea is used to teach the political idea rather than using it to inspire people. Accordingly, in the music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required to teach traditional folk songs not including any political ideology so as to recover the ethnic homogeneity and to prepare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부 록 목 차

부록 1	탄소	1
1)	탄소의 연주형태	1
2)	탄소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3
부록 2	저대	5
1)	저대의 연주형태	6
2)	저대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7
부록 3	가야금	9
1)	개량된 가야금	9
2)	가야금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10
3)	가야금의 음역과 음구	14
4)	가야금의 음색	12
5)	소리내는 주법	12
결론		13

부 록 1 단 소³⁰⁾

북한의 단소는 북한의 음악예술의 주체적 발전을 위하여 민족악기를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남한의 단소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본래 단소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참대를 잘라 윗부분에 취구를 파고 앞에 5개, 뒤에 1개의 소리구멍을 내어 아랫입술에 대고 불었다. 이 재래단소는 소리세기(음량)가 약하고 자유롭게 조바꿈(전조)을 할 수 없고, 앙상블에서 제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에 의해 현대적으로 개량되었다.

개량된 단소는 5음계가 아니라 12반음계(평균률)로 조율되어 '여러 가지 조'로의 조바꿈이 가능하고 그 연주법에서 룡음, 미분음, 끝소리 등 섬세한 민요적굴림기교들은 물론 끊기의 다양한 방법들과 굴림소리, 빠른 음 진행 등 현대적인 주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현재 단소는 종전의 자연재료인 참대 대신에 가공한 나무(박달나무, 자단나무 등)를 가지고 규격화하였으며, 안직경을 2mm 정도 더 크게 하였다. 또한 연결관을 만들고 소2도(단2도)정도까지의 음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12음계에 따라 손가락 쓰기에 편리하게 소리구멍을 더 뚫고 누르개들을 설치하여 빠른 음악연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30) 박형섭, 조선민족악기 총서 「단소」 평양 : 문예출판사, 1983, p7~10

<그림 1> 북한단소



<그림 1> 는 실제로 북한의 단소를 구하여 관찰해 보았다.

북한의 단소를 구해서 관찰해 보았더니 남한의 단소와는 생김새나 음색에서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르개가 달려있고 연결부분에 철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도 훨씬 무거웠으며, 생김새가 남한의 플룻과 비슷했다. 음색은 남한의 단소보다 크고 두꺼운 소리가 났으며 12음계의 소리를 다 낼 수 있었다.

1) 단소의 연주 형태

‘단소는 독주 악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단소독주곡으로는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만경봉은 제일봉》, 《봉화산기슭》, 《초소의 봄》 등 수 많은 곡이 있다. 독주악기로서만이 아니라 북한의 독창적인 주제적 배합관현악³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악양상블에서 민족적 특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명가극의 관현악과 무용반주, 노래반주에서 처량하고 독특한 소리색깔과 민요적인 굴림기교들은 배합관현악의 민족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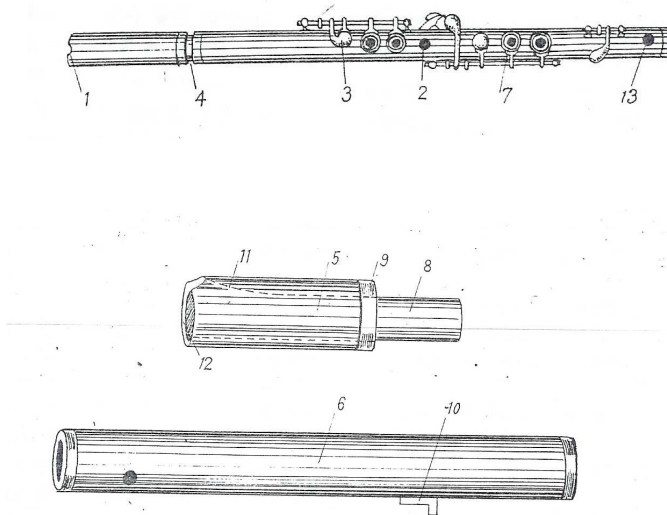
31) 북한은 70년대에 개량된 민족악기를 양악기와 함께 편성한 주제적 관현악 편성법이라는 배합관현악을 편성해 오늘에 이르렀다.

단소는 목관3중주(단소, 고음저대, 중음저대), 목관4중주(단조,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와 목관8중주 (단소,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 장새납, 대피리, 저음피리, 생황(또는 반주악기1대)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단소 2중주곡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단소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단소는 세로 부는 리드가 없는 악기이다. 단소는 취구, 소리구멍, 누르개, 련결부, 웃올림통, 아래올림통, 손받치개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림 2> 북한단소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1. 취구, 2. 소리구멍, 3. 누르개, 4. 련결부, 5. 웃올림통, 6. 아래올림통,
7. 가락지 누르개, 8. 련결관, 9. 가락지, 10. 손받치개, 11. 소리홈, 12. 입술관, 13. 아래소리구멍

〈그림2〉에 보이는 단소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단소의 취구는 옷울림통의 끝부분을 사선으로 깎아 얻은 작은 반원의 구멍(반경3mm 정도)과 그 구멍을 밑면으로 울림통 안에 있는 반원추모양의 소리홈을 포함한다.

단소에는 모두 13개의 소리구멍(음공)이 있다. 그 가운데 10개는 열려져 있고 나머지 3개는 닫혀져 있으며 키를 설치하여 열게 되어 있다. 10개의 열려있는 소리구멍가운데서 가죽마개가 달린 키에 의해 닫아 지는 것이 3개가 있다. 소리구멍의 크기와 생김새는 소리 높이와 색깔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소여음의 아래에 있는 소리구멍들이 크면 소리는 밝고 반대로 그 아래 소리구멍들이 작으면 음정이 낮아질 뿐 아니라 소리색깔도 어두워진다.

부 록 2 저 대

저대³²⁾ 또한 개량 발전되어 남한의 저대(대금)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저대는 민족악기들 가운데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온 악기의 하나로서 음색의 독특함과 기교에서 우수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율에서 5음체계를 비롯하여 음역과 음량이 부족하고 자연재로 참대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에서 과학성과 통일성을 보장 할 수 없다. 이러한 실태로부터 저대도 현대적으로 개량하였다. 개량과정에서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의 세 가지로 만들어 지면서 고음, 중음, 저음의 성부를 갖는 악기를 개량하게 되었다.”³³⁾

개량된 저대의 재료는 박달나무나 자단 같은 굳은 나무를 가공하여 내경을 고르게 파고 음공들을 평균률의 치수에 따라 설치함으로 12반음계로 만들어 전조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저대의 우아하고 처량하며 구성진 소리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음량을 확대하고 음역을 더 넓혔으며 손가락쓰기가 편리하게 누르개들을 설치하였다. 그러면서도 취구의 모양과 입술 대는 것 등의 기본 주법적 기초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룡음과 끝소리 등 고유한 주법들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대속 악기들은 모두 음색적 통일성을 보장하면서도 음역에 맞게 고음저대는 《Cb》조로, 중음저대는 《Eb》조로 조율 되었다.

32) 림동숙, 조선민족악기총서 「저대」 평양:문예출판사, 1987

33) 림동숙, 전계서, p7

<그림 3> 북한 저대



<그림 4> 는 북한의 저대를 실제로 구하여 관찰해 보았다. 북한의 단소와 비슷하게 누르개와 철재로 연결된 부분 때문에 무게가 무거웠으며, 우리나라의 대금보다는 서양의 플룻과 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금은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면 북한의 저대는 밝고 음량이 세며 큰 소리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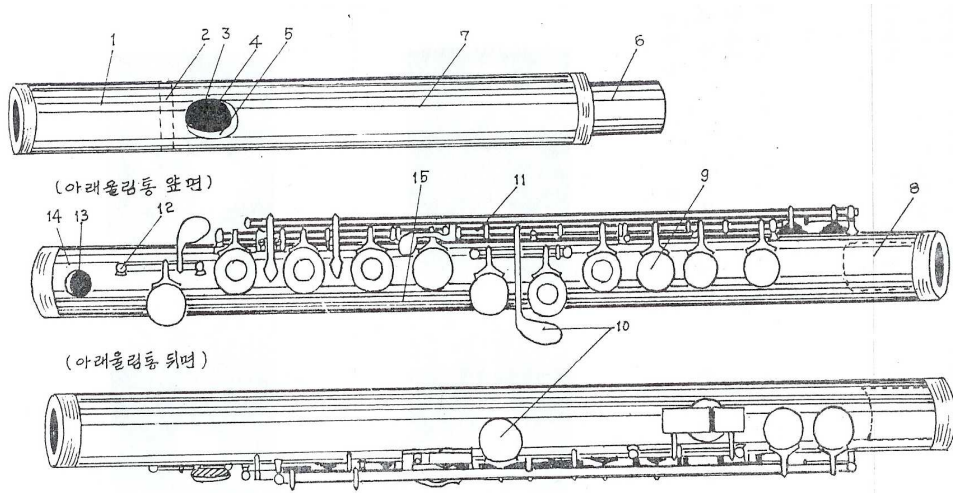
1) 저대의 연주형태

저대 대표곡으로는 저대 독주곡의 《만경대의 봄》, 중음저대 독주곡 《금상산의 노래》, 고음저대독주곡 《금강선녀》, 저대2중주곡 《사향가》, 등은 세계무대에서도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저대속악기들은 배합관현악에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민족기악중주 즉 목관 3중주(고음저대, 중음저대, 단소), 저대3중주(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 저대2중주, 목관8중주 등에서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다.

2) 저대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³⁴⁾

<그림4> 북한저대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1. 머리 2. 소리판 3. 취구 4. 소리홈 5. 아래입술턱대이는 부분
 6. 옷련결관 7. 옷올림통 8. 련결관 꺾는 부분 9. 덮개 있는 소리구멍
 10. 누르개 달린 덮개 있는소리구멍 11. 누르개련결관대 12. 누르개장치못
 13.보조구멍 14. 끝부분 15.아래올림통

<그림4>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대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저대의 취구는 입술을 대고 날숨을 내불어 소리를 내는 구멍이다. 취구는 앞부분에 소리홈, 뒷부분에 아랫입술턱 대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저대의 취구는 소리색깔, 소리세기, 기교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관악기들에 비해 크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34) 림동숙, 전개서, p10

저대는 14개의 소리구멍(음공)과 1개의 보조구멍으로 되어 있다. 그 중 10개는 열려진 소리구멍이고 4개는 닫혀 있는데 보조적인 누르개에 의해서 열게 되어 있다. 14개의 소리구멍 가운데 4개는 덮개를 직접 눌러 막거나 열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8개는 누르개에 의하여 열거나 닫게 되어 있다. 저대의 소리구멍 위치와 크기는 음의 높이를 결정하며, 구멍이 취구 쪽에 가까울수록 음정은 높아지고 소리구멍이 커질수록 어느 정도 음정이 높아진다.

울림통은 취구에서 얻은 소리(음원)를 더 확대 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나무관이며, 런결부는 저대의 윗울림통과 아래울림통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며 음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런결관을 약간 뽑으면 음정이 낮아지며, 런결관을 꽂으면 관대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음정이 높아진다. 보통 소2도(단2도)까지 음정을 조절 할 수 있다.

부 록 3 가야금³⁵⁾

북한 가야금은 개량되어 12음계를 가지고 있고, 다리를 붙여서 의자에 앉아서 연주한다. 북한에서는 옛날 조선악기로는 인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개량하였다고 한다. 이전의 12줄이나 13줄의 가야금은 음역이 좁고 음량이 풍부하지 못하며 자유롭게 전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화음도입이나 다양한 주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웠고 앙상블에서 일련의 제약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 시대의 벽찬 현실을 노래한 음악들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없었다. 또한 그 구조에도 거추장스러운 부두줄이 달려 있으며 명주실로 되어 줄이 자주 늘어나 음정이 변하였다고 한다.

1) 개량된 가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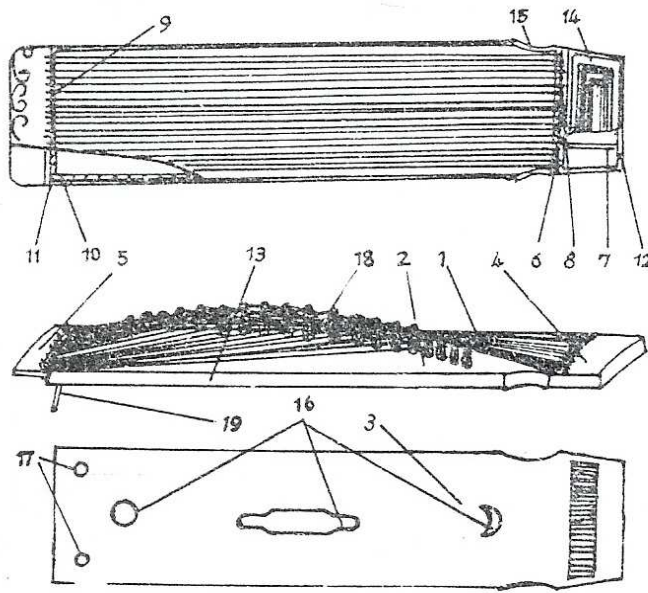
종래의 가야금을 보완하여 개량된 가야금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처량한 음색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넓은 음역 풍부한 음량으로 그 어떤 음악도 다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개량된 가야금은 5음계가 아닌 12음계로 조율되어 전조가 가능하고 그 연주법에서도 룡음, 미분음, 끝소리, 등 섬세한 민요적 굴림기교들과 현대적 주법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울림통의 재질 및 제작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서고, 가야금줄이 개량되면서 늘어나거나 잘 끊어지지 않아 음정이 변하지 않는다. 또한 부두줄 대신 조임못을 도입함으로 조율하기 편리하며 악기로서의 문화적인 면모도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지난 시기 실내악기와 달리 무대악기로 발전하면서 가야금에 다리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35) 김길환, 조선민족악기총서 「가야금」 평양 : 문예출판사, 1987. 6~7

2) 가야금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그림 5> 가야금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이름

1. 줄 2. 앞판 3. 뒤판 4. 머리 5. 꼬리 6. 줄구멍 7. 줄조임못 8. 줄베개
 9. 꼬리턱 10. 이음대 11. 마구리 12. 머리판 13. 테두리 14. 치레판
 15. 목판 16. 울림구멍 17. 다리구멍 18. 피 19. 다리



<그림 5>에 보이는 가야금의 구조를 보면 가야금의 앞판과 뒤판, 테두리를 통털어 울림통이라고 한다. 울림통은 줄과 함께 소리의 세기와 색깔 등 악기소리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줄은 소리의 높이를 규정한다. 소리 높이는 줄의 시간당 진동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진동수가 많을수록 소리는 높아지고 진동수가 적을수록 소리는

낮아진다. 줄의 진동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줄의 길이가 길수록 진동수는 적어지고 줄의 길이가 짧을수록 진동수는 많아진다.

둘째, 줄의 당김이 강할수록 진동수는 많아지고 당김힘이 약할수록 진동수는 적어진다.

셋째, 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진동수는 적어지고 가벼울수록 진동수는 많아진다.

넷째, 줄의 굵기(직경)가 굵을수록 진동수는 적어지고 가늘수록 진동수는 많아진다.

줄의 재질에 따라 음색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가야금에 쓰이는 줄들을 보면 명주실(건사)로 끈 줄, 카트선, 화학섬유 또는 금속으로 만든 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음색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명주실로 끈 줄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화학섬유나 금속으로 만든 줄을 많이 이용한다. 가야금의 피는 줄의 진동을 그대로 울림통에 전달하는 작용을 하며 소리높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피의 높이는 낮은음으로부터 높은음으로 올라가면서 낮아지도록 하며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

3) 가야금의 음역과 음구

가야금은 《Cb》조 악기이며 악보는 고음기호로 한 옥타브 올려서 기보한다. 실제 소리는 옥타브 대2도(장9도) 낮게 들린다. 21줄로 된 가야금의 음역은 소옥타브 G로부터 3옥타브 F까지 21도(두옥타브7도)이다. 가야금의 음구는 저음구는 G에서 1옥타브 G까지, 중음구는 1옥타브 G부터 2옥타브 G까지, 고음구는 2옥타브 G부터 3옥타브 F까지 이다.

4) 가야금의 음색

‘가야금의 음색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우아하며 구성진 것이 특징이다. 가야금은 음구에 따라 다른데 저음구의 음색은 폭넓고 웅글지고 깊이가 있고 무겁다. 중음구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구성지다. 고음구는 탄력 있고 선명하며 예리하다. 또한 주법에 따라 즉 뜨기로 소리를 내는가 텅기기로 소리를 내는가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게 된다.’³⁶⁾고 설명하고 있다.

5) 소리내는 주법

가야금에서 소리내는 주법에는 뜨기, 텅기기, 훑기, 미르기, 집기, 뜯기 등이 있으며 뜨기에서도 한줄 뜨기, 겹줄뜨기, 이어뜨기, 오른손뜨기, 왼손뜨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주법이 있다.

뜨기는 손가락 끝으로 줄을 걸고 위로 떠 올렸다가 놓아주어 소리내는 주법을 말한다. 뜨기에는 한줄뜨기, 이어뜨기(분산화음, 알페지오, 걸소리, 굴림소리, 돌림소리 등의 연주), 겹줄뜨기(두줄뜨기, 세줄뜨기 등) 등이 있다. 또한 북한에는 왼손뜨기가 있어 예전에는 왼손은 룡현만 담당 했는데 지금은 왼손도 오른손과 같이 뜯어서 음을 표현한다.

결론

북한은 민족 음악을 현대화 하려는 과제로 악기를 개량하고 있다. 악기개량의 장점은 서양 악기와 같이 연주 할 수 있어 배합이 가능하고, 민족 악기와 양악기 분류가 없어지며 조 옮김이 가능 해 진다. 그러나 전통 음악이

36) 김문환, 상계서, p10

이러한 평균율과는 다르게 3음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음의 높낮이나 음색을 결정하는 여러 음악적 요소들이 해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악기 개량은 북한만의 음악발전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의 악기가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북한의 악기개량 역시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가 통제적 기구로 볼 수 있다. 199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대 이후 실시되는 악기개량은 김정일의 주체적인 교시를 따르는 것이고 북한만의 악기를 개량하여 사상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